

2019년 09월 09일 세명일보 12면(톱)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실력 '과시'

3개국 12개 대학 참가



영진전문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재학생들이 대만 미아오리시 대만연합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며, 글로벌한 실력을 과시했다.

8일 영진전문대에 따르면 김은채·김민영 학생(컴퓨터정보계열 일본IT기업주문반 3년)은 지난 5일 대만 미아오리시 대만연합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학회명:The 3rd NIT-NUU Bilateral Academic Conference 2019)에 참가해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학회는 대만의 대만연합대학교 등 3개 대학교, 일본 NIT(일본고등전문학교) 소속 51개 대학 등이 국제학술교류 협력 차원에서 개최했다.

또 학회에는 한국, 대만, 일본 등 3개국 12개 대학교에서 IT, 기계, 전기·전자, 소재공학, 언어교육, 경영 분야 학사와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이 참여해 전공 연구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은채 학생은 'e-PUB 3.0을 이용한 웹기반 e-Book 출판물 제작 플랫폼 설계와 구현방안 제안' 논문을, 김민영 학생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블록체인 기법을 활용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신뢰성 제공' 논문을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일본IT기업주문반 재학생인 두



(왼쪽부터) 정영철 영진전문대 교수와 김민영, 김은채 학생이 대만 미아오리시 대만연합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진전문대 제공>

학생은 이미 일본 라쿠텐(Rakuten) 입사가 내정된 글로벌 인재다. 이들은 올 초부터 약 8개월간 기획, 설계, 구현, 테스트 등 졸업프로젝트를 수행한 과제를 영어로 번역, 논문으로 작성해 발표에 나섰다.

김은채 학생은 "직접 쓴 논문으로 학회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값진 경험이다. 준비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논문을 완성해가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대회 참가하며 국제교류의 즐거움과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다"며 "이러한 경험을 살려 내년엔 입사하게 될 라쿠텐(Rakuten)에서도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김민영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만든

프로젝트를 논문으로 작성하며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깊이 파고들 수 있었다. 국제학술대회에서 나 스스로 점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고, 라쿠텐(Rakuten)에 입사하면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정영철 컴퓨터정보계열 교수는 "학생들 발표 주제가 최신 기술들을 다루고 있어서 발표회장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김민영 학생의 논문은 블록체인을 다루고 있어 발표 후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면서 "앞으로 영진의 고품격 인재들이 해외 학회들에서 더욱 조명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2019년 09월 06일 뉴스

영진전문대 학생들이, 국제학술대회서 실력과시



국제학술대회에서 호평을 받은 김은채씨(왼쪽)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영진전문대학교 재학생들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며 글로벌 실력을 과시했다.

6일 영진전문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김은채·김민영(컴퓨터정보계열 일본IT기업주문반 3년)씨는 5일 대만 미아오리시 대만연합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학회명 : The 3rd NIT-NUU Bilateral Academic Conference 2019)에 참가해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학회는 대만의 대만연합대학교 등 3개 대학교, 일본 NIT(일본고등전문학교) 소속 51개 대학 등이 국제학술교류 협력 차원에서 개최했다.

학회에는 한국, 대만, 일본 등 3개국 12개 대학교에서 IT, 기계, 전기·전자, 소재공학, 언어교육, 경영 분야 학사와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이 참여해 전공 연구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김은채씨는 'e-PUB 3.0을 이용한 웹기반 e-Book 출판물 제작 플랫폼 설계 및 구현방안 제안' 논문을, 김민영씨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블록체인 기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신뢰성 제공' 논문을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일본IT기업주문반 재학중인 이들은 이미 일본 라쿠텐(Rakuten) 입사가 내정된 글로벌 인재다. 이들은 올 초부터 약 8개월간 기획, 설계, 구현, 테스트 등 졸업프로젝트를 수행한 과제를 영어로 번역, 논문으로 작성, 발표했다.

김은채씨는 "직접 쓴 논문으로 학회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값진 경험이다. 준비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논문을 완성해가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대회 참가하며 국제교류의 즐거움과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내년 입사하게 될 라쿠텐(Rakuten)에서도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김민영씨는 "친구들과 함께 만든 프로젝트를 논문으로 작성하며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깊이 파고들 수 있었다. 국제학술대회에서 나 스스로 점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라쿠텐(Rakuten)에 입사하면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했다.

정영철 교수(컴퓨터정보계열)는 "학생들 발표 주제가 최신 기술들을 다루고 있어서 발표회장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김민영씨의 논문은 블록체인을 다루고 있어 발표 후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면서 "앞으로 영진의 고품격 인재들이 해외 학회들에서 더욱 조명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호용 기자]

2019년 09월 06일 매일경제 인터넷판

영진전문대 재학생들 국제학술대회 논문 `호평`



영진전문대 정영철 교수와 김은채, 김민영(일본IT기업주문반)학생(사진 왼쪽부터)이 지난 5일 대만 연합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서 논문을 발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진전문대학교 재학생들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 호평을 받았다.

6일 영진전문대에 따르면 김은채, 김민영(컴퓨터정보계열 일본IT기업주문반3년) 학생이 지난 5일 대만연합대학교에서 개최된 IT(정보통신) 관련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학회는 대만연합대학교 등 3개 대학교, 일본 NIT(일본고등전문학교) 소속 51개 대학 등이 국제학술교류 협력 차원에서 열렸다.

학회에는 한국 대만 일본 등 3개국 12개 대학교에서 IT, 기계, 전기전자, 소재공학 학사와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이 참여해 전공 연구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김은채 학생은 `e-PUB 3.0`을 이용한 웹기반 e-Book 출판물 제작 플랫폼 설계 및 구현방안 제안` 논문을, 김민영 학생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블록체인 기법을 활용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신뢰성 제공` 논문을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이미 영진전문대 일본IT기업주문반 재학 중인 두 학생은 이미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 입사가 내정됐다.

김은채 학생은 "직접 쓴 논문으로 학회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값진 경험"이라며 "이러한 경험을 살려 내년 입사하게 될 라쿠텐에서도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민영 학생도 "라쿠텐에 입사하면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했다.

정영철 교수(컴퓨터정보계열)는 "학생들 발표 주제가 최신 기술들을 다루고 있어서 발표회장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특히 김민영 학생의 논문은 블록체인을 다루고 있어 발표 후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우성덕 기자]

2019년 09월 06일 전자신문 인터넷판

영진전문대 재학생 2명, 국제학술대회서 ICT관련 논문 발표 눈길



왼쪽부터 정영철 교수, 김은채 학생, 김민영 학생

영진전문대학교(총장 최재영) 재학생 2명이 저명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정보통신 기술(ICT)논문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이 대학교 김은채·김민영(컴퓨터정보계열 일본IT기업주문반, 3년)학생은 지난 5일 대만 미아오리시 대만연합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The 3rd NIT-NUU Bilateral Academic Conference 2019)에 참가해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학회는 대만의 대만연합대학교 등 3개 대학교, 일본 NIT(일본고등전문학교) 소속 51개 대학 등이 국제학술교류 협력 차원에서 개최했다. 학회에는 한국, 대만, 일본 등 3개국 12개 대학교에서 IT, 기계, 전기·전자, 소재공학, 언어교육, 경영 분야 학사와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이 참여해 전공 연구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은채 학생은 'e-PUB 3.0을 이용한 웹기반 e-Book 출판물 제작 플랫폼 설계 및 구현방안 제안' 논문을, 김민영 학생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블록체인 기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신뢰성 제공' 논문을 각각 발표했다.

일본IT기업주문반 재학생인 두 여학생은 이미 일본 라쿠텐(Rakuten) 입사가 내정된 글로벌 인재다. 올 초부터 8개월간 기획, 설계, 구현, 테스트 등 졸업프로젝트를 수행한 과제를 영어로 번역, 논문으로 작성해 발표에 나섰다.

김은채 학생은 "직접 쓴 논문으로 학회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값진 경험이다. 준비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논문을 완성해가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김민영 학생은 "국제학술대회에서 나 스스로 점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라쿠텐에 입사하면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했다.

정영철 컴퓨터정보계열 교수는 "학생들 발표 주제가 최신 기술들을 다루고 있어서 발표회장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앞으로 고품격 인재들이 해외 학회들에서 더욱 조명 받을 수 있도록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2019년 09월 06일 아시아뉴스통신

영진전문대 재학생,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실력 과시!

대만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 2명 발표 "호평받아"



영진전문대학교(총장 최재영) 재학생들이 국제학술대회서 논문을 발표하며 글로벌한 실력을 과시했다.

6일 영진전문대에 따르면 김은채, 김민영 학생(컴퓨터정보계열 일본IT기업주문반 3년)은 5일 대만 미아오리시 대만연합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학회명 : The 3rd NIT-NUU Bilateral Academic Conference 2019)에 참가해 논문을 발표했다.

영진전문대 김은채, 김민영 학생(컴퓨터정보계열 일본IT기업주문반 3년)이 5일 대만 미아오리시 대만연합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서 논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논문 발표를 마치고 정영철 교수와 김민영, 김은채 학생(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이번 학회는 대만의 대만연합대학교 등 3개 대학교, 일본 NIT(일본고등전문학교) 소속 51개 대학 등이 국제학술교류 협력 차원에서 개최했다.

학회에는 한국, 대만, 일본 등 3개국 12개 대학교에서 IT, 기계, 전기.전자, 소재공학, 언어교육, 경영 분야 학사와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이 참여해 전공 연구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은채 학생은 'e-PUB 3.0을 이용한 웹기반 e-Book 출판물 제작 플랫폼 설계 및 구현방안 제안' 논문을, 김민영 학생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블록체인 기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신뢰성 제공' 논문을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일본IT기업주문반 재학중인 두 학생은 이미 일본 라쿠텐(Rakuten) 입사가 내정된 글로벌 인재다.

이들은 올 초부터 약 8개월간 기획, 설계, 구현, 테스트 등 졸업프로젝트를 수행한 과제를 영어로 번역, 논문으로 작성해 발표에 나섰다.

김은채 학생은 "직접 쓴 논문으로 학회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값진 경험이다. 준비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논문을 완성해가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대회 참가하며 국제교류의 즐거움과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내년에 입사하게 될 라쿠텐(Rakuten)에서도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김민영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만든 프로젝트를 논문으로 작성하며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깊이 파고들 수 있었다. 국제학술대회에서 나 스스로 점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고, 라쿠텐(Rakuten)에 입사하면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정영철 교수(컴퓨터정보계열)는 "학생들 발표 주제가 최신 기술들을 다루고 있어서 발표회장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김민영 학생의 논문은 블록체인을 다루고 있어 발표 후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면서 "앞으로 영진의 고품격 인재들이 해외 학회들에서 더욱 조명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률 기자]

2019년 09월 06일 국제뉴스

영진전문대 재학생, 대만 국제학술대회 논문 호평...국제위상 우뚝

대만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 2명 발표, 호평받아



영진전문대학교 김은채, 김민영(컴퓨터정보계열 일본IT기업주문반, 3년)학생이 지난 5일 대만 미아오리시 대만연합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서 논문을 발표했다. 학회에서 논문 발표를 마친 김은채 학생(왼쪽 첫번째) 등이 학회 발표자에게 주어지는 수료증을 들고 사진촬영에 나선 모습.



영진전문대학교 김은채, 김민영(컴퓨터정보계열 일본IT기업주문반, 3년)학생이 지난 5일 대만 미아오리시 대만연합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서 논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논문 발표를 마치고 정영철 교수와 김민영, 김은채 학생(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진전문대학교 김은채, 김민영(컴퓨터정보계열 일본IT기업주문반, 3년)학생이 지난 5일 대만 미아오리시 대만연합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서 논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학회에서 논문 발표를 마친 김민영 학생(왼쪽 세 번째) 등이 학회 발표자에게 주어지는 수료증을 들고 사진촬영에 나선 모습.

영진전문대학교(총장 최재영) 재학생들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며 글로벌한 실력을 과시했다.

이 대학교 김은채, 김민영(컴퓨터정보계열 일본IT기업주문반, 3년)학생은 5일 대만 미아오리시 대만연합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학회명 : The 3rd NIT-NUU Bilateral Academic Conference 2019)에 참가해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학회는 대만의 대만연합대학교 등 3개 대학교, 일본 NIT(일본고등전문학교) 소속 51개 대학 등이 국제학술교류 협력 차원에서 개최했다.

학회에는 한국, 대만, 일본 등 3개국 12개 대학교에서 IT, 기계, 전기·전자, 소재공학, 언어교육, 경영 분야 학사와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이 참여해 전공 연구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은채 학생은 'e-PUB 3.0을 이용한 웹기반 e-Book 출판물 제작 플랫폼 설계 및 구현방안 제안' 논문을, 김민영 학생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블록체인 기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신뢰성 제공' 논문을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일본IT기업주문반 재학중인 두 여학생은 이미 일본 라쿠텐(Rakuten) 입사가 내정된 글로벌 인재다. 이들은 올 초부터 약 8개월간 기획, 설계, 구현, 테스트 등 졸업 프로젝트를 수행한 과제를 영어로 번역, 논문으로 작성해 발표에 나섰다.

김은채 학생은 "직접 쓴 논문으로 학회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값진 경험이다. 준비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논문을 완성해가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대회 참가하며 국제교류의 즐거움과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내년 입사하게 될 라쿠텐(Rakuten)에서도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김민영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만든 프로젝트를 논문으로 작성하며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깊이 파고들 수 있었다. 국제학술대회에서 나 스스로 점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라쿠텐(Rakuten)에 입사하면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했다.

정영철 교수(컴퓨터정보계열)는 "학생들 발표 주제가 최신 기술들을 다루고 있어서 발표회장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김민영 학생의 논문은 블록체인을 다루고 있어 발표 후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면서 "앞으로 영진의 고품격 인재들이 해외 학회들에서 더욱 조명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백운용 기자]

2019년 09월 06일 일요신문 인터넷판

영진전문대 학생, 대만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호평 외



영진전문대학교(총장 최재영)는 이 대학 재학생 두 명이 지난 5일 대만 미아오리시 대만연합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논문을 발표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학 김은채·김민영(컴퓨터정보계열 일본IT기업주문반, 3년)학생은 이날 열린 'The 3rd NIT-NUU Bilateral Academic Conference 2019'에 참가해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 발표를 마친 (왼쪽부터) 정영철 교수와 김민영·김은채 학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학회는 대만의 대만연합대 등 3개 대학교, 일본 NIT(일본고등전문학교) 소속 51개 대학 등이 국제학술 교류협력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국, 대만, 일본 등 3개국 12개 대학에서 IT, 기계, 전기·전자, 소재공학, 언어교육, 경영분야 학사와 석사, 박사과정 학생들이 참여해 전공 연구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김은채 학생은 'e-PUB 3.0을 이용한 웹기반 e-Book 출판물 제작 플랫폼 설계 및 구현방안 제안' 논문을, 김민영 학생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블록체인 기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신뢰성 제공' 논문을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일본IT기업주문반에 재학중인 두 학생은 이미 일본 라쿠텐(Rakuten) 입사가 내정된 글로벌 인재다. 이들은 올 초부터 약 8개월 간 기획, 설계, 구현, 테스트 등 졸업프로젝트를 수행한 과제를 영어로 번역 후 논문으로 작성해 발표에 나섰다.

김은채 학생은 "직접 쓴 논문으로 학회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값진 경험이다. 준비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논문을 완성해 가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대회에 참가하며 국제교류의 즐거움과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살려 내년 입사하게 될 라쿠텐에서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영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만든 프로젝트를 논문으로 작성하며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깊이 파고들 수 있었다. 국제학술대회에서 나 스스로 점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고, 라쿠텐에 입사하면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정영철 컴퓨터정보계열 교수는 "학생들 발표 주제가 최신 기술들을 다루고 있어 발표회장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김민영 학생의 논문은 블록체인을 다루고 있어 발표 후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면서 "앞으로 영진의 고품격 인재들이 해외 학회들에서 더욱 조명 받을 수 있도록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영 기자]

2019년 09월 06일 일요일

영진전문대 재학생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호평'

대만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 2명 발표, 호평받아



논문 발표를 마치고 정영철 교수와 김민영, 김은채 학생(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진전문대학교(총장 최재영) 재학생들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며 글로벌한 실력을 과시했다.

이 대학교 김은채, 김민영(컴퓨터정보계열 일본IT기업주문반, 3년)학생은 5일 대만 미아오리시 대만연합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학회명 : The 3rd NIT-NUU Bilateral Academic Conference 2019)에 참가해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학회는 대만의 대만연합대학교 등 3개 대학교, 일본 NIT(일본고등전문학교) 소속 51개 대학 등이 국제학술교류 협력 차원에서 개최했다.

학회에는 한국, 대만, 일본 등 3개국 12개 대학교에서 IT, 기계, 전기·전자, 소재공학, 언어교육, 경영 분야 학사와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이 참여해 전공 연구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은채 학생은 'e-PUB 3.0을 이용한 웹기반 e-Book 출판물 제작 플랫폼 설계 및 구현방안 제안' 논문을, 김민영 학생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블록체인 기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신뢰성 제공' 논문을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일본IT기업주문반 재학중인 두 여학생은 이미 일본 라쿠텐(Rakuten) 입사가 내정된 글로벌 인재다.

이들은 올 초부터 약 8개월간 기획, 설계, 구현, 테스트 등 졸업프로젝트를 수행한 과제를 영어로 번역, 논문으로 작성해 발표에 나섰다.

김은채 학생은 "직접 쓴 논문으로 학회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값진 경험이다. 준비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논문을 완성해가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대회 참가하며 국제교류의 즐거움과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내년 입사하게 될 라쿠텐(Rakuten)에서도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김민영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만든 프로젝트를 논문으로 작성하며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깊이 파고들 수 있었다. 국제학술대회에서 나 스스로 점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라쿠텐(Rakuten)에 입사하면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했다.

정영철 교수(컴퓨터정보계열)는 "학생들 발표 주제가 최신 기술들을 다루고 있어서 발표회장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김민영 학생의 논문은 블록체인을 다루고 있어 발표 후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면서 "앞으로 영진의 고품격 인재들이 해외 학회들에서 더욱 조명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을규 기자]

2019년 09월 06일 NSP통신

영진전문대, 대만 국제학술대회서 논문발표로 실력 뽐내

대만 대만연합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호평 이어져



영진전문대학교(총장 최재영) 재학생들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며 글로벌한 실력을 과시했다.

영진전문대 컴퓨터정보계열 김은채, 김민영(일본IT기업주문반, 3년)학생은 지난 5일 대만 미아오리시 대만연합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학회명 : The 3rd NIT-NUU Bilateral Academic Conference 2019)에 참가해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 5일 대만 미아오리시 대만연합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서 논문 발표를 마치고 정영철 교수와 김민영, 김은채 학생(왼쪽부터)이 수료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학회는 대만의 대만연합대학교 등 3개 대학교, 일본 NIT(일본고등전문학교) 소속 51개 대학 등이 국제학술교류 협력 차원에서 개최했다.

학회에는 한국, 대만, 일본 등 3개국 12개 대학교에서 IT, 기계, 전기·전자, 소재공학, 언어교육, 경영 분야 학사와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이 참여해 전공 연구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은채 학생은 'e-PUB 3.0을 이용한 웹기반 e-Book 출판물 제작 플랫폼 설계 및 구현방안 제안' 논문을, 김민영 학생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블록체인 기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신뢰성 제공' 논문을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일본IT기업주문반 재학중인 두 여학생은 이미 일본 라쿠텐(Rakuten) 입사가 내정된 글로벌 인재다. 이들은 올 초부터 약 8개월간 기획, 설계, 구현, 테스트 등 졸업프로젝트를 수행한 과제를 영어로 번역, 논문으로 작성해 발표에 나섰다.

김은채 학생은 "직접 쓴 논문으로 학회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값진 경험이다. 준비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논문을 완성해가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대회 참가하며 국제교류의 즐거움과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내년 입사하게 될 라쿠텐(Rakuten)에서도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김민영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만든 프로젝트를 논문으로 작성하며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깊이 파고들 수 있었다. 국제학술대회에서 나 스스로 점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라쿠텐(Rakuten)에 입사하면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정영철 컴퓨터정보계열 교수는 "학생들 발표 주제가 최신 기술들을 다루고 있어서 발표회장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김민영 학생의 논문은 블록체인을 다루고 있어 발표 후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면서 "앞으로 영진의 고품격 인재들이 해외 학회들에서 더욱 조명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병수 기자]

2019년 09월 06일 브레이크뉴스

영진전문대 재학생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호평



정영철 교수 김은채 김민영

영진전문대학교(총장 최재영) 재학생들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며 글로벌한 실력을 과시했다.

6일 영진전문대에 따르면 이 대학교 김은채, 김민영(컴퓨터정보계열 일본IT기업주문반, 3년)학생은 5일 대만 미아오리시 대만연합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학회명 : The 3rd NIT-NUU Bilateral Academic Conference 2019)에 참가해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학회는 대만의 대만연합대학교 등 3개 대학교, 일본 NIT(일본고등전문학교) 소속 51개 대학 등이 국제학술교류 협력 차원에서 개최했다.

학회에는 한국, 대만, 일본 등 3개국 12개 대학교에서 IT, 기계, 전기·전자, 소재공학, 언어교육, 경영 분야 학사와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이 참여해 전공 연구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은채 학생은 'e-PUB 3.0을 이용한 웹기반 e-Book 출판물 제작 플랫폼 설계 및 구현방안 제안' 논문을, 김민영 학생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블록체인 기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신뢰성 제공' 논문을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일본IT기업주문반 재학중인 두 여학생은 이미 일본 라쿠텐(Rakuten) 입사가 내정된 글로벌 인재다. 이들은 올 초부터 약 8개월간 기획, 설계, 구현, 테스트 등 졸업프로젝트를 수행한 과제를 영어로 번역, 논문으로 작성해 발표에 나섰다.

김은채 학생은 "직접 쓴 논문으로 학회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값진 경험이다. 준비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논문을 완성해가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대회 참가하며 국제교류의 즐거움과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내년 입사하게 될 라쿠텐(Rakuten)에서도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김민영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만든 프로젝트를 논문으로 작성하며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깊이 파고들 수 있었다. 국제학술대회에서 나 스스로 점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라쿠텐(Rakuten)에 입사하면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했다.

정영철 교수(컴퓨터정보계열)는 "학생들 발표 주제가 최신 기술들을 다루고 있어서 발표회장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김민영 학생의 논문은 블록체인을 다루고 있어 발표 후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면서 "앞으로 영진의 고품격 인재들이 해외 학회들에서 더욱 조명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성현 기자]

2019년 09월 06일 포커스데일리

영진전문대 학생들이, 국제학술대회서 '글로벌 실력'과시

5일 대만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서 호평받아



정영철 교수와 김민영, 김은채 학생

영진전문대학교 재학생들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며 글로벌한 실력을 과시했다.

이 대학교 김은채, 김민영(컴퓨터정보계열 일본IT기업주문반, 3년)학생은 5일 대만 미아오리시 대만연합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학회명 : The 3rd NIT-NUU Bilateral Academic Conference 2019)에 참가해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학회는 대만의 대만연합대학교 등 3개 대학교, 일본 NIT(일본고등전문학교) 소속 51개 대학 등이 국제학술교류 협력 차원에서 개최했다.

학회에는 한국, 대만, 일본 등 3개국 12개 대학교에서 IT, 기계, 전기·전자, 소재공학, 언어교육, 경영 분야 학사와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이 참여해 전공 연구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은채 학생은 'e-PUB 3.0을 이용한 웹기반 e-Book 출판물 제작 플랫폼 설계 및 구현방안 제안' 논문을, 김민영 학생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블록체인 기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신뢰성 제공' 논문을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일본IT기업주문반 재학중인 두 여학생은 이미 일본 라쿠텐(Rakuten) 입사가 내정된 글로벌 인재다. 이들은 올 초부터 약 8개월간 기획, 설계, 구현, 테스트 등 졸업프로젝트를 수행한 과제를 영어로 번역, 논문으로 작성해 발표에 나섰다.

김은채 학생은 "직접 쓴 논문으로 학회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값진 경험이다. 준비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논문을 완성해가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대회 참가하며 국제교류의 즐거움과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내년 입사하게 될 라쿠텐(Rakuten)에서도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김민영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만든 프로젝트를 논문으로 작성하며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깊이 파고들 수 있었다. 국제학술대회에서 나 스스로 점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라쿠텐(Rakuten)에 입사하면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했다.

정영철 교수(컴퓨터정보계열)는 "학생들 발표 주제가 최신 기술들을 다루고 있어서 발표회장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김민영 학생의 논문은 블록체인을 다루고 있어 발표 후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면서 "앞으로 영진의 고품격 인재들이 해외 학회들에서 더욱 조명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홍종오 기자]

2019년 09월 06일 뉴스웨이

영진전문대 재학생, 대만 국제학술대회서 논문 발표



좌측부터 정영철 교수, 김민영 학생, 김은채 학생

영진전문대(총장 최재영) 김은채, 김민영(컴퓨터정보계열 일본IT기업주문반, 3년)학생이 지난 5일 대만 미아오리시 대만연합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The 3rd NIT-NUU Bilateral Academic Conference 2019)에 참가해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학회는 대만의 대만연합대학교 등 3개 대학교, 일본 NIT(일본고등전문학교) 소속 51개 대학 등이 국제학술교류 협력 차원에서 개최했다.

학회에는 한국, 대만, 일본 등 3개국 12개 대학교에서 IT, 기계, 전기·전자, 소재공학, 언어교육, 경영 분야 학사와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이 참여해 전공

연구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은채 학생은 'e-PUB 3.0을 이용한 웹기반 e-Book 출판물 제작 플랫폼 설계 및 구현방안 제안' 논문을, 김민영 학생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블록체인 기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신뢰성 제공' 논문을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일본IT기업 주문반 재학중인 두 여학생은 이미 일본 라쿠텐 입사가 내정된 글로벌 인재다. 이들은 올 초부터 약 8개월간 기획, 설계, 구현, 테스트 등 졸업프로젝트를 수행한 과제를 영어로 번역, 논문으로 작성해 발표에 나섰다.

정영철 교수(컴퓨터정보계열)는 "학생들 발표 주제가 최신 기술들을 다루고 있어서 발표회장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김민영 학생의 논문은 블록체인을 다루고 있어 발표 후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2019년 09월 06일 프레시안

영진전문대 재학생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에서 실력과시

대만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 2명 발표, 호평받아



논문 발표 후 정영철 교수와 김민영, 김은채 학생

영진전문대학교 재학생들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며 글로벌한 실력을 과시했다.

이 대학교 김은채, 김민영(컴퓨터정보계열 일본IT기업주문반, 3년)학생은 5일 대만 미아오리시 대만연합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학회명 The 3rd NIT-NUU Bilateral Academic Conference 2019)에 참가해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학회는 대만의 대만연합대학교 등 3개 대학교, 일본 NIT(일본고등전문학교) 소속 51개 대학 등이 국제학술교류 협력 차원에서 개최했다.

학회에는 한국, 대만, 일본 등 3개국 12개 대학교에서 IT, 기계, 전기·전자, 소재공학, 언어교육, 경영 분야 학사와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이 참여해 전공 연구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은채 학생은 'e-PUB 3.0을 이용한 웹기반 e-Book 출판물 제작 플랫폼 설계 및 구현방안 제안' 논문을, 김민영 학생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블록체인 기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신뢰성 제공' 논문을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일본IT기업주문반 재학중인 두 여학생은 이미 일본 라쿠텐(Rakuten) 입사가 내정된 글로벌 인재다. 이들은 올 초부터 약 8개월간 기획, 설계, 구현, 테스트 등 졸업프로젝트를 수행한 과제를 영어로 번역, 논문으로 작성해 발표에 나섰다.

김은채 학생은 "직접 쓴 논문으로 학회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값진 경험이다. 준비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논문을 완성해가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대회 참가하며 국제교류의 즐거움과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내년 입사하게 될 라쿠텐(Rakuten)에서도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김민영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만든 프로젝트를 논문으로 작성하며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깊이 파고들 수 있었다. 국제학술대회에서 나 스스로 점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라쿠텐(Rakuten)에 입사하면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했다.

정영철 교수(컴퓨터정보계열)는 "학생들 발표 주제가 최신 기술들을 다루고 있어서 발표회장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김민영 학생의 논문은 블록체인을 다루고 있어 발표 후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면서 "앞으로 영진의 고품격 인재들이 해외 학회들에서 더욱 조명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진희 기자]